광주시, 수능 수험생 편의 지원대책 추진

코로나19 방역·교통·소음방지 등 4개 분야
수능일 종합·교통·방역 등 5개 상황실 운영

광주시는 오는 17일 41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편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지역 수능 지원자는 1만6720명이다. 광주시는 수험생들이 차질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교통·시험장 주변 소음방지·자연재해 대비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키로 했다.

수능 당일에는 시·유관기관·자치구와 협력, 종합상황실·교통상황실·코로나19관리반·재난상황실 등 5개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험장별로 전문 구급자격사를 배치, 시험장 내 응급환자 처치나 안전상황에 대비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험장 41곳에 대해 화재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5개 자치구·교육청과 합동으로 입시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4019곳에 대한 특별방역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 등 2300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환기 실시 등 자율방역 실천 주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16일 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수험생은 교육청이 지정한 별도 시험장 2곳에서, 입원 치료 수험생은 별도 지정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확진자가 별도 시험장으로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 소방안전본부가 구급차를 이용,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험장 입실 시간인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생의 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능교통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광주경찰은 순찰차 73대와 오토바이 6대를 활용, 수험생 긴급수송을 지원한다. 광주시에서는 장애인 수험생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전용택시 208대를 확보, 무료수송을 지원한다.

교통지도차량 23대와 견인차량 5대를 이용해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관리한다. 시와 자치구·모범운전자회 등 460명이 투입돼 시험장 주변 교통지도에 나선다.

시내버스 기·종점 14곳에서 49명이 버스 배차시간 준수를 지도하고, 시험장 인근 지하철 역사 7곳에서는 26명이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를 안내한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은 소음 통제시간으로 시험장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경적 등 교통소음과 공사장·시장 등 생활소음도 통제한다.

수능 당일 24시까지 충장로·상무지구 등 청소년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소년 관련 12개 기관에 소속된 64명이 참여하는 전국 청소년쉼터 연합 아웃리치(위기청소년 구호) 활동을 벌인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수험생들이 편안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점검, 교통 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철도·화물·공항·병원…공공운수노조, 오는 23일부터 '공동파업'

내달 2일까지 공동파업…약 10만명 조합원 참여 예정

철도노조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 노정 교섭을 요구하며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정부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대정부 공동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파업 준비 사업장인 의료연대본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건보고객센터지부, 화물연대본부 등 14개 산하 조직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민영화, 인력 및 예산 감축 등 국민의 안전을 재벌의 이윤을 위해 팔아치우는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특히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우려하며 지난달 정부에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노정 교섭'을 공개 요구했지만, 정부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파업에는 지하철과 철도, 화물, 공항, 병원, 학교,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 10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벌어지는 공공운수 부문 노동자들의 대정부 공동 파업"이라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에서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업은 23일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화물연대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며, 급식·돌봄 노동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는 "우리의 파업은 국민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투쟁"이라며 "승리의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윤석열 정부에 준엄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수험생 지원 준비 완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계 대원들이 수험생 지원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순천만 야생조류 흑두루미 폐사체서 'AI항원 검출'…전남도 긴급방역

폐사체서 13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순천만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전남도가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별량면 학산리 순천만에서 발견된 흑두루미 폐사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3~4곳의 검사 기관을 거쳐야 해서 3~5일 소요될 전망이다.

AI 청정 지역을 유지해 온 전남도는 항온이 검출되자 반경 10㎞를 특별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농장 7곳에 대한 선제적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해당 가금농장 7곳에 대해선 15일 선제적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또 인근 전체 가금농장에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농장 출입통제와 함께 소독·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전남에선 지난 11일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발견된 고니 폐사체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확진 검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도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2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선 인천 1건, 경기 3건, 충북 2건, 충남 3건, 전북 5건, 경북 1건, 경남 2건 등 7개 시·도에서 17건이 검출됐다.

가금농장에선 경북 2건, 충북 7건, 충남 1건, 전북 1건 등 4개 도에서 11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 없이 청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경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최근 경찰서 4층 이화마루(대회의실)에서'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나주=송준표 기자

순천경찰-순천시·시의회,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최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치안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경찰,'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지난 15일 고흥읍 청소년문화의집 등 2개 장소에서 고흥군·고흥교육지원청·고흥나누리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총20여 명이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진도소방119생활안전순찰대, 오지마을 생활 안전 점검 실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 119생활안전순찰대(이하 순찰대)는 지산면 세포마을 등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생활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광양소방, 제12회 영·호남 의용소방대 친선교류

광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 노은순)는 14일 광양시 중동 호텔에서 경남 남해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초청해 "제12회 영·호남 의용소방대 친선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광주 동부소방, 한국119청소년단의 행복나눔 편지 전달 받아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방의 날 및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관내 한국119청소년단원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행복나눔 편지를 전달 받았다.

이슬비 기자